DAY 59 · 6부 앞으로

로봇의 어느 조각에 AI가 들어 있을까 — 로봇과 AI

하루 5분 AI 수업 · 2026년 11월 4일

로봇이 AI가 된 게 아니라, 로봇의 앞쪽 세 조각에 AI가 들어간 거야.

한 줄로 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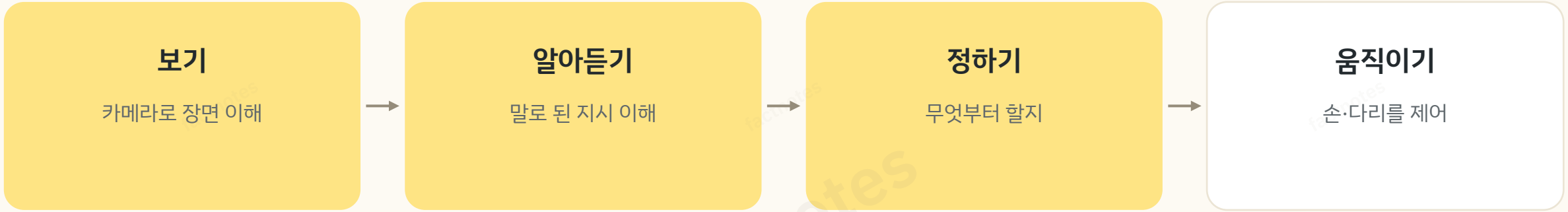
1. 요즘 로봇이 똑똑해 보이는 건 몸이 좋아져서가 아니야. **로봇의 '뇌' 자리에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AI를 꽂았기** 때문이야.

2. 쪼개 보면 눈·말귀·판단 조각에는 AI가 들어갔고, **손과 다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조각은 여전히 기계 기술**이야. 둘은 원래 뿌리가 다른 분야인데 2023년쯤부터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어.

3. 그래서 진짜 어려운 쪽은 생각이 아니라 몸이야. 균형은 1초에 수백에서 수천 번 잡아야 하는데 생각은 그 속도로 못 해서, **빠른 회로와 느린 회로를 따로 돌려**.

그림 한 장으로

로봇이 한 번 움직이기까지



앞 세 조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붙었고, 마지막 조각은 수십 년 쌓인 기술이야. 둘이 만나야 로봇이 움직여.

핵심: AI는 로봇의 앞쪽 세 조각에 들어갔고, 몸을 움직이는 조각은 따로다

실험 · 쪼개보기

로봇을 조각내 보면 — 어디에 AI가 들어갔나

예전 로봇

정해진 길만 똑같이 반복

눈 (보기) | 말귀 (알아듣기) | 뇌 (무엇을 할지) | **손 (잡기)** | **다리 (움직이기)**

정해 준 좌표대로만 움직여. 물건이 1cm만 삐뚤어져 있어도 허공을 집어. 손과 다리는 사람보다 정확했는데 무엇을 할지 스스...

요즘 로봇

보고 · 알아듣고 · 정한다

눈 (보기) | **말귀 (알아듣기)** | **뇌 (무엇을 할지)** | **손 (잡기)** | **다리 (움직이기)**

2023년부터 사진을 알아보는 AI와 말을 알아듣는 AI를 로봇 몸에 그대로 연결했어. '빨간 컵 집어' 하면 빨간 컵을 봐...

속을 열면

빠른 회로와 느린 회로

균형 잡기 (제일... | **관절 움직이기 (...** | **무엇을 할지 (느...** | **왜 그걸 하는지...**

2026년 공개된 한 로봇은 전신 균형을 1초에 1,000번, 관절을 200번 고쳐 잡고, 의미를 따지는 부분은 훨씬 천천히...

버튼을 누르면 같은 로봇을 시대별로, 그리고 속까지 쪼개서 보여줘. 주황색이 AI가 들어간 조각, 초록색이 기계 기술로 굴러 ...

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 next-token.net/learn/day-59/

확인해보기

세 문제만 풀어 보자

Q1 요즘 로봇이 똑똑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① 뇌 자리에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AI를 꽂아서
② 몸이 훨씬 튼튼해져서
③ 배터리가 커져서
④ 사람이 뒤에서 조종해서

Q2 예전 로봇의 가장 큰 약점은?

① 힘이 약했다
② 정해 준 대로만 움직여 조금만 달라져도 헛손질
③ 너무 느렸다
④ 소리가 시끄러웠다

Q3 로봇이 빠른 회로와 느린 회로를 나눠 쓰는 이유는?

① 전기를 아끼려고
② 소리를 줄이려고
③ 균형은 초당 수백 번 필요해서
④ 무게를 줄이려고

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

Q1

① 손과 다리 기술은 예전에도 정확했어. 달라진 건 보고 알아듣고 무엇을 할지 정하는 조각에 AI가 들어갔다는 점이야.

Q2

② 좌표대로만 움직였으니까 물건이 1cm만 삐뚤어도 허공을 집었어. 스스로 보고 정하는 조각이 없었던 거야.

Q3

③ 몸을 붙잡는 일은 1초에 수백에서 수천 번 해야 하는데, 의미를 따지는 생각은 그 속도로 못 해. 그래서 층을 나눠 따로 돌려.

로봇이 AI가 된 게 아니라.
로봇의 앞쪽 세 조각에 AI가 들어간 거야.



내일은 배우는 순서 — 60일 수업 마지막 시간, 스스로 배우는 단계를 차례로 맞춰 보자.